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sidential Stressors on The Housing Management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文 淑 才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 : Sook Jae, Moon*

전주우석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 郭 仁 淑

*Dept. of Home Economics
Jeonju Woosuk Univ.
Associate Prof. : Ju Suk, Kwak*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resulting rapid urbanization in Korea in the several decades caused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and the various residential stressors. In spit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re have been very few studies that analyses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residential stressors on the housing adjustment attitudes and housing management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such effects by identifying,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For this purpose, 822 housewives were sampled from the households in Seoul and Chonju-City.

The main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Higher tendency to housing adaptation than housing adjustment was observed in residential stress reaction. The level of residential stress affect housing adjustment attitudes. The lower level of stress is observed in housing adjustment than housing adaptation.

2) The higher level of housing management behavior is observed in the lower level of residential stress, the smaller level of living space, the higher level of family adaptation ability and social support.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도시에서 생활하는 가족은 지나치게 다양한 경험과 자극으로 인해 행동의 제약이나 불편함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은 이러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심리적인 과부담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서 대처할 능력을 방해받게 된다(Altman외, 1980).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가족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어 심리적인 균형상태가 깨지게 되고, 타인의 존재나 도움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편리한 정보이용, 유리한 취업기회와 소득의 증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 생활의 편리함 등의 이점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과 인간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중 환경 스트레스접근은 환경의 혐오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중재적인 매개변인으로서 '스트레스'를 사용했다. 1980년대에는 스트레스의 대처능력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환경하에서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재생력에 따라서 인지수준과 적응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를 가족자원의 구성인자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매개변수로서 설명하였다. 가족은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인적 차이나 상황적 차이 등에 따라 환경의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위해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게 된다. 이때 적정범위를 넘어선 자극으로 인지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을 취하게 되고, 대처능력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처방법을 선택하게 된다(Boss, 1988). 대처능력이 미약한 가족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대한 장기적인, 또는 과도한 접촉은 가족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의사결정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가족의 대처능력에 따라 적절한 주거조정이나 적응을 계획하게 되고 가족이 희망하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관리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주거환경의 스트레스나 가족의 대처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가족이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조절태도나 주거관리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는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제한된 가족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의사결정과정이나 주거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개념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가족과 주거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주거환경의 제측면들이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가족의 규범을 벗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주거환경의 자극이 평가과정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인지될 때 스트레스로서 문제가 된다.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주택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 가족이 긴장하고, 불편함을 인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행동이 요구되는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주거긴장(Seek, 1983)이나 주거결함(Morris외, 1976)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족의 스트레스 유발요소는 현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이 가족의 어느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환경과 가족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강도는 약하지만 누적되는 고질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2.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주거조절태도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대처반응은 인지된 스트레스의 양과 가족의 대처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Morris등(1978)은 주택의 적응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한계(도덕적, 사회적, 가족적 규범)를 벗어난 상태의 즉각적인 영향을 스트레스로 규정하고, 이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제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은 조정, 적응, 병리적 상태 등 3유형의 반응을 보인다. 조정이란 일상적인 행동의 변화를 통한 조정기제의 사용이며, 적응이란 비교적 영구적인 행동의 구조적인 변화로서 규범이나 기준의 변화, 규범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변화를 통한 대처이며, 병리적 상태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복지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며, 병리적 현상의 결과로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집단내 갈등의 발생을 들 수 있다(Morris외, 1978). 한편 Lazarus(1980)는 대처 방법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지향적 대처방법과 정서지향적 대처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지향적 대처방법은 문제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유효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며, 자원이 풍부한 경우 사용가능하다. 이는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공간을 재조정한다든가 장치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직접 다룰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Baum등 외, 1980). 정서지향적 대처방법은 소극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Lazarus, 1980 ; Folkman외, 1980 ; Holahan, 1982).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인지적인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방어기제나 약물사용으로 스트레스 인자와의 방어벽을 쌓는 것도 포함되며, 문제지향적인 대처방안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실행가능성이 적을 때 사용된다(Baum외, 1980). 이외에 가장 소극적인 반응인 무행동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선택적 조정(decisional control)이 있다.

주거조절태도는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에 따라 가장 소극적인 무행동의 태도나 소극적으로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가족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주거적응의 태도, 현재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적합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는 적극적 주거조정 태도등,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처태도는 스트레스 유발요소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이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환경지각에 기반을 둔 인지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에 기반을 둔 행동적반응이 형성된다. 인간은 환경에 대해 수동적 반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응을 시도하며, 때로는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Holahan, 1982). 주거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족은 적합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자원에 관한 관리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가족체계에서의 포괄적인 관리행동은 미래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뿐 아니라 주어진 사회문화적, 기술경제적 여건 속에서 현명한 길을 찾는 것이다(문숙재, 1980). 그러므로 주거관리행동은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관리행동의 계획과정에는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표준설정과 행동의 순서화가 포함된다. 표준설정은 목표와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가능한 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행동의 순서화는 실제적인 주거공간 확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들간의 순서를 정하거나, 한 활동의 각 부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행은 계획안과 절차를 행동화하고 행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행동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며, 통제는 계획작성시의 기대된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점검과 계획에서 이탈된 경우 행동의 순서 및 표준을 변화시키는 조정이 포함된다. 관리의 과정은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나 가족체계내 역동성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며, 심리적 자원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긴장을 잘 견디며(Boss, 1988), 관리전략을 사용하며,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가 증가한다(Fitzsimmons 등 외, 1991). 주거관리과정은 많은 정보와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경제적 자원의 제한이나 사회적인 상황, 정책, 제도에 의한 제약은 주거관리행동을 저해할 수 있다.

주거관리행동은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을 통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자원, 경제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하며, 창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가족이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양과 소유한 자원, 가족의 결속수준 및 문제해결의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주거환경의 영향을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접근법을 사용하여 Morris 외(1978)의 생리적인 모형과 Bell 외(1978)의 환경과 인간행동에 관한 절충적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그림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가구 특성

(1) 가구의 소득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10만원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한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2) 남편의 직업과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분류를 근거로 1 >무직 은퇴, 2>단순노무자, 3>피고용기능공, 4 >자영상공인·자영기술자·자영서비스업, 5>사무직 기술직, 6>전문직·관리직, 7>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최고위관리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실제 교육받은 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가구원수와 가족형태

가구원수는 현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동거인을 포함한 수로, 1인 가정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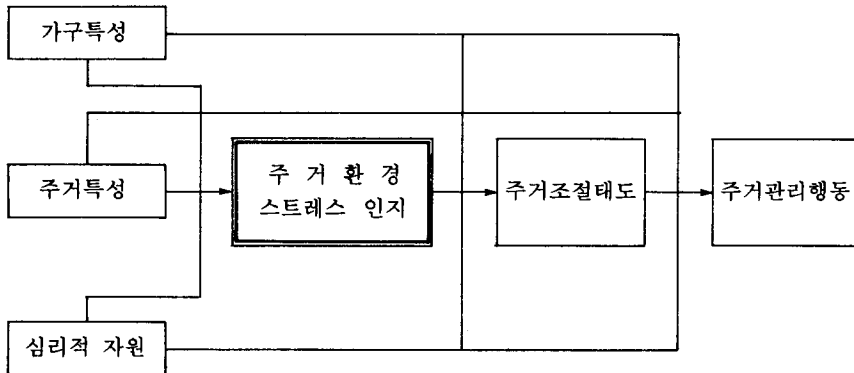


그림 1.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개념적 모형.

<연구문제 ①> 도시가족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은 주거조절태도에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낼 것인가?

<연구문제 ②> 도시가족의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은 주거관리행동에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낼 것인가?

(4) 가정생활주기

가정생활주기는 Duvall(1985)의 8 단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신혼기, 미취학아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독립기의 6단계로 수정하였다.

2) 주거 특성

(1) 주택의 규모와 소유

도시가구의 주택규모는 현재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규모를 평수로 기입하도록 하고, 주택의 소유는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상태에 따라 자택, 독채 전세, 일부전세, 월세, 사택으로 분류하였다.

(2) 주택의 유형과 위치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외의 건물로 분류하고, 주택의 위치는 단독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공장지대,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3) 가족의 심리적 자원

(1) 가족의 조정력, 적응력, 응집력

가족의 조정력, 적응력, 응집력은 박금희(1986)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각각 4, 6,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Type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조정력이 .89, 적응력이 .75, 응집력이 .80 였다.

(2) 가족의 사회적자원과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은 김정희(1987)의 문항중 6문항을 선정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가족의 생활만족도는 김연정(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최고 만족을 10점, 최하 불만족을 0점으로 한 11단계의 사다리 척도로 만족수준을 측정하였다.

4)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Bell 의 (1978), Holahan((1982), 김미희(1985), 곽인숙 (1986)등의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생존을 위한 욕구단계, 자신과 소유재산의

보호욕구단계, 안락과 편리의 욕구단계, 사회적인 상호관계의 욕구단계, 자아실현과 미적인 욕구단계 등 주거욕구의 각단계에 9문항씩 45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Type 으로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따라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경우 1점,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경우 5점을 주었다.

5) 주거조절태도와 주거관리행동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인지에 따른 가족의 대처 반응을 Morris의(1978), McCubbin의(1980), 홍형옥(1986)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무행동, 기대수준을 낮추는 심리적 적응, 주거적응, 주거조정, 사회적인 제도나 법규의 변화를 시도하는 태도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관리행동은 Deacon의(1981)의 관리과정을 기초로 계획능력과 관계되는 문항은 가족의 요구의 명료화(집의 개선이나 이사의 필요성과 목적의 확인, 전체 가족의 요구를 고려)의 2문항, 행동 순서화의 능력(장기적인 가계계획, 단계에 따라 필요할 사항에 대비한 계획)을 위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행능력(주택의 가격과 상태의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주택의 수리나 이사를 결정할 때 전문적인 정보의 이용)의 2문항과 점검과 조정능력(현재 계획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평가하고 반성, 경제적 문제의 발생시 자원 조달의 가능성)의 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거관리행동의 8개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85였다.

6) 주거행동제약

주거행동제약 요소는 가족의 선호나 경제적능력의 제한과 같은 가족내적제약,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일반적인 경기등 경제적제약, 주택자금의 융자제도나 주택의 분양조건 및 방법에 의한 주택정책제약, 방법, 공해, 학군, 교통과 관계된 사회적환경제약등이 포함된다. 홍형옥(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각각 2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대도시인 서울과 중도시인 전주시의 2개 도시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거주하

고 있는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분석 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1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700명과 전주 400명의 총 1,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구소득과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배부하였다. 수집자료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서울의 613부와 전주의 209부의 총 82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된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배경변인의 관계를 검토했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est)과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주거조절태도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부록1과 같다.

2.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조절태도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과 주거조절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환경 스트레스 수준을 4집단으로, 주거조절태도는 적극성 정도에 따라 무행동, 주거적응, 주거조정, 만족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거조절태도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고, 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주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주거조정성이 높은 행동을 취하는 집단이라고 한 홍형옥(198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홍형옥의 추가분석에 의하면 주거결함 점수와 주거조정성 및 적응성 점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 스트레스나 주거결함의 점수가 높은 집단은 적극적으로 주거조정을 하기에는 가족의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집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3. 주거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

주거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특성, 주거특성, 가족의 심리적 자원의 변인에 따라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의 분석결과, 주거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beta = -.204$), 남편의 교육년한($\beta = .084$), 가구의 소득($\beta = .082$), 남편의 직업, 가정생활주기 변수등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14.3%로 나타났다($p < .001$).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주거관리행동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주거관리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변수는 자영업공인은 1.56점, 사무직이나 기술직은 1.76점, 전문직 등은 1.48점 정도가 단순노무자 가구보다 주거관리행동수준이 높았다. 가정형성기의 가족이 자녀교육기나 가정축소기의 가족보다 주거관리행동수준이 낮았다. 이는 형성기 가족의 주거요구는 높으나 주거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주거관리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특성변수를 추가한 2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주거관리행동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심리적 자원변수를 추가한 3단계의 분석결과 심리적 자원변수가 주거관리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이 2단계의 16.7%에서 26.2%로 증가되었다. 사회적 지원($\beta = .185$), 적응력($\beta = .130$), 응집력($\beta = .114$), 조정력($\beta = .073$)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관리행동수준이

부록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특성 (N=822)

변수	집 단		%	빈도	변수	집 단		%	빈도
가 구 의 소 득	60만원	이하	10.3	85	주 택 의 규 모	13 평 이 하	13.5	111	
	61~100	만원	30.7	248		14 ~ 20 평	20.6	169	
	101~150	만원	22.6	186		21 ~ 30 평	33.3	274	
	151~200	만원	20.9	172		31 ~ 40 평	16.2	133	
	201~250	만원	4.7	38		41 ~ 50 평	9.1	75	
	251만원	이상	10.8	89		51 평 이 상	7.3	60	
남 편 의 직 업	무 직 · 은 퇴		1.9	15	주 택 의 소 유	자 전 세	60.9	501	
	단 순 노 무 자		4.0	32		전 세 집	21.8	179	
	피 고 용 기 능 공		6.3	51		전 세 방	12.9	106	
	자 영 상 공 인		21.8	176		월 세	3.8	31	
	사 무 직 · 기 술 직		36.2	292		기 타	0.6	5	
	전 문 직 · 관 리 직		27.6	223		사 용 하 는 방 의 수	1 개	5.7	47
대 기 업 주		2.2	51	2 개	27.6		227		
남 편 의 교 육 수 준	중 학 교 졸 업		9.4	77	3 개		44.5	366	
	고 등 학 교 졸 업		28.6	231	4 개		14.7	121	
	대 학 교 졸 업		50.0	404	5 개 이 상		7.4	61	
	대 학 원 이 상		14.5	117	주 택 의 유 형	단 독 주 택	38.0	312	
가 구 원 수	2 명		10.2	84		아 파 트	44.6	367	
	3 명		18.6	153		연 립 주 택	12.7	104	
	4 명		34.9	287		주 택 이 외 건 물	4.7	39	
	5 명		23.0	189		주 택 의 위 치	단 독 주 택 가	47.4	390
	6 명		9.0	74			아 파 트 단 지	42.9	353
	7 명 이 상		4.3	35			상 장 가	5.8	48
가 정 생 활 주 기	신 혼 기		10.6	87	공 장 지 대		1.5	12	
	미 취 학 아 동 기		21.4	176	기 타		2.3	19	
	초 등 교 육 기		22.0	181	방 당 거주인수	1 명 이 하	25.2	207	
	중 · 고 등 교 육 기		21.2	174		1~2명 이 하	65.1	535	
	대 학 교 육 기		16.8	138		2.1 명 이 상	9.7	80	
	자 녀 독 립 기		8.0	66					

표 1.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과 주거조절태도 (N=822)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거조절태도					비 고
	무 행 동	주거적응	주거조정	만 족	합 계	
80점미만	9(4.6)	32(11.1)	32(14.0)	43(38.7)	116	X ² =135.3 ***
80~100점미만	47(24.1)	100(34.7)	96(42.1)	44(39.6)	287	
100~120점미만	82(42.1)	117(40.6)	84(36.8)	21(18.9)	304	
120점이상	57(29.2)	39(13.5)	16(7.0)	3(2.7)	115	
합 계	195(23.7)	288(35.1)	228(27.7)	111(13.5)	822(100.0)	

***p<.001

표 2. 제변수들의 주거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표

(N=822)

독립 변수	주거관리행동 B(β)	주거관리행동 B(β)	주거관리행동 B(β)
주거환경 스트레스	-0.041(-0.204)***	-0.038(-0.185)***	-0.011(-0.054)
δ 지역	0.389(0.041)	0.243(0.025)	0.458(0.048)
δ 자영상공인	1.562(0.155)**	1.456(0.144)**	0.977(0.097)*
δ 사무직 기술직	1.759(0.203)***	1.688(0.195)***	1.361(0.157)**
δ 전문직 등	1.482(0.163)**	1.480(0.163)*	0.869(0.095)
가구의 소득	0.005(0.082)*	0.005(0.083)*	0.001(0.020)
남편의 교육년한	0.123(0.084)*	0.087(0.050)	0.074(0.050)
가구수	0.193(0.061)	0.396(0.124)*	0.369(0.115)*
δ 가족형태	-0.387(-0.033)	-0.376(-0.032)	0.138(0.012)
δ 가정확대기	-1.525(-0.181)***	-1.609(-0.191)***	-1.364(-0.162)***
δ 가정축소기	-1.549(-0.159)**	-1.569(-0.161)**	-1.338(-0.138)**
주택의 규모		-0.012(-0.045)	-0.006(-0.022)
δ 주택의 소유		0.301(0.035)	0.444(0.052)
방당거주인 수		-0.582(-0.086)	-0.469(-0.069)
δ 단독주택		-1.025(-0.119)	-1.036(-0.120)
δ 연립주택		0.820(0.066)	0.791(0.063)
δ 기타의 주택		0.216(0.011)	0.142(0.007)
δ 단독주택가		0.373(0.045)	0.369(0.044)
δ 상가		0.445(0.024)	0.248(0.014)
δ 유흥가, 공장		0.043(0.002)	0.223(0.010)
가족의 적응력			0.178(0.130)**
가족의 조정력			0.103(0.073)*
가족의 응집력			0.146(0.114)**
사회적지원			0.221(0.185)***
생활의 만족도			-0.019(-0.008)
δ 회귀상수	28.040	28.648	14.064
R2	.143	.0167	.262

*p<.05, **p<.01, ***p<.001 δ; Dummy 처리변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대처반응으로 주거관리행동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주거관리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가구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주거관리행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 주기가 진전될수록 주거관리행동수준이 낮은 것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므로 이미 가족이 요구하는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있거나 주거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심리적 자원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은 주거관리행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응력이나 응집력이 큰 가족일수록 가족자원관리의 빈도가 높고 관리행동과 정적인 상관이라는 Fitzsimmons의(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응집력이나 적응력이 큰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관리전략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가볍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므로, 가족의 심리적 자원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이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주거관

리행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 주거조절태도와 주거관리 계획 및 수행능력

가족이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해도 계획적 주거관리능력이 낮은 원인이 주거조절태도에 의한 영향인지를 밝히기 위해, 가족의 주거조절태도에 따른 주거관리 계획능력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족이 주거환경의 스트레스에 대해 무행동의 태도를 가진 가족은 주거관리의 계획능력과 수행능력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거적응과 주거조정의 태도를 가진 가족간에는 주거관리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주거환경의 조절의사를 가진 가족간에는 주거관리의 수준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 주택에 만족하는 가족도 더 나은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 계획을 세우나 단지 수행수준이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주거행동제약과 주거관리행동

주거관리행동과 가족이 인지하는 제약유형에 따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주거행동제약은 가족의 주거관리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 즉 주거요구에 맞춰 주거환경을 조정하거나, 대안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인 규범이 대처전략의 실현 기회에 차이를 만든다(Zimring, 1981).

가족의 주거관리 계획능력은 주거행동제약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수행능력은 제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일반경기의 침체나 인플레이에 의한 제약을 인지하거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제약을 인지한 경우 주거관리 수행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가족의 주거관리 수행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함께 일반물가의 안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도시가족의 주거조절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이며,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주거조절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조절태도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의 소득으로,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조정력, 적응력, 사회

표 3. 주거조절태도에 따른 주거관리 계획능력과 수행능력 (N=822)

주거조절태도	주 거 관 리 계 획 능 력		주 거 관 리 수 행 능 력	
	평 균(Duncan)	F 값	평 균(Duncan)	F 값
무 행 동	13.93 B	4.23	12.88 B	3.74
주 거 적 응	14.55 A		13.56 A	
주 거 조 정	14.68 A		13.38 A	
만 족	14.69 A		13.22 AB	

**p<.01

표 4. 주거행동제약에 따른 주거관리 계획능력과 수행능력 (N=822)

주거행동제약	주 거 관 리 계 획 능 력			주 거 관 리 수 행 능 력		
	빈도	평균(D)	F 값	빈도	평균(D)	F 값
경 제 정 책	321	13.27 A	1.70	321	13.15 B	3.02
가 족 내 적 제 약	273	14.45 A		273	13.27 A	
사 회 적 환 경	142	14.73 A		142	13.32 A	
주 택 정 책	86	14.75 A		86	13.97 A	

*p<.05

적지원,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심리적 자원이 풍부한 가족일수록 적극적인 주거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관리행동은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자원이 풍부한 가족이 정서적으로 밀접해 관리전략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심리적 자원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째, 주거조절의사가 없는 가족은 주거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두 능력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주택에 만족하는 가족도 주거조절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계획능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행능력만 조금 낮았다.

네째, 주거관리 계획능력은 주거행동제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수행능력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가족의 주거요구와 주거환경이 맞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가족에 따라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의 욕구단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보다는 각각의 가족이 당면한 주거요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가정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관리행동은 주거환경 스트레스의 수준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관리행동이 많은 정보와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관리행동의 교육과 심리적자원의 향상을 통해 가족의 주거관리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가족에게 주어진 유용한 자원의 범위내에서 현실적 표준을 설정하고, 가족에게 가치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자원을 분배하고, 다른 주거요구를 포기할 수 있는 현명한 계획과 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이 요망된다. 또한 가족이 세계적인 인구증가 및 에너지 자원의 제한, 환경의 공해등을 고려할 수 있는 미래의 세계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유를 위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가족 개개인은 주거요구와 환경의 영향이 다르므로 가족의 개별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관리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장기적인 가족자원관리의 측면에서의 종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 1) 강대기(1981). "과밀환경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제 20집, 179-209.
- 2) 박인숙(1986).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61-182.
- 3)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37집, 351-69.
- 4) _____·이경희(1986). "도시가구의 주거과밀지각과 주거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09-125.
- 5) 윤복자·박남희(1989). "아파트 내부소음에 대한 거주자 태도 및 적응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85-96.
- 6) 이옥주(1986). "가족의 긴장과 극복책략에 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제 2권, 서울여자대학, 여성연구소, 50-61.
- 7) 홍두승·김미희(1988).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 19집, 485-533.
- 8) 홍형욱(1986). "한국인의 주거조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9) Baum, A., Singer, J.E. & Baum C.S.(1982). *Stress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tress*, Edit by G.W.Ev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5-41.

- 10) Bell, P.A., Fisher, J.D. & Loomis R.J.(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W.B.Saunders Company.
- 11) Boss, Pauline.(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Sage Publications, Inc. California
- 12) Deacon, R.E. & Firebaugh F.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13) Edwards, J.N., Booth, A. & Edwards P.K.(1982). "Housing Type, Stress, and Family Relations". *Social Forces*, 61(1) pp.241-57.
- 14) Fisher, J.D., Bell, P.A. & Baum A.(1983). Environmental Psych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15) Fitzsimmons, V.S., Hafstrom, J.L., 임정빈.(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 ;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 9(1), 81-194.
- 16) Holahan, C.J. (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Inc.
- 17) _____ & Moos R.H.(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46-55.
- 18) Kendig, H.L.(1984). "Housing Careers, Life Cycle and Residential Mobility ;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Studies* 21, 271-83.
- 19) McCubbin, H.I., Joy, C.B. Cauble, A.E. Cameaw, J.K. Patterson, J.M. & Needle R.H.(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 A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pp.125-42,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20) Melson, G.F.(1980). Family and Environment, Burgess Publising Co., Minneapolis, Minnesota.
- 21) Michelson, W.(1976). Man and His Urban Environment-A Sociological Approa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 22) Peck, C. & Stewart K.K.(1985).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Quality of L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4), 363-372.
- 23) Rent, R.S. & Rent C.S.(1978). "Low-Income Housing Factors Residential Area Evaluation in Hamilton, Canada",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18, 41-52.
- 24) Rice, A.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25) Schorr, A.L.(1975). Human needs in Housing ; An Ecological Approach, Edited by B.M.Morrison, & K. Natras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26) Zimring, C.M.(1981). "Stress and The Designed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7(1), 145-71.